



코스피	2300.16 (+13.66)	코스닥	784.70 (+3.29)
금리 (우대금리)	2.08 (-0.02)	환율 (원/달러)	1123.80 (-0.20) (7일)



[뉴스]
흔들리는 자영업
망원역 일대 가보니
유명세에 월세만 올라
02

文 대통령 “마차에 자동차 속도 맞춘 영국의 실패 보라”

인터넷은행發 ‘붉은 깃발론’, 규제혁신 신호탄?

인터넷銀行규제혁신 현장 방문
‘은산분리’ 탄력 적용 시사
모탈헤저드 등엔 엄격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붉은 깃발법’ 이야기를 꺼내며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선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등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붉은 깃발법 때문에)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면서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 있고

시장시켜버릴 수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영국이 가장 먼저 개발한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서 주요 선진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19세기 말 마차산업을 보호하고 마차 속도에 자동차 속도를 맞추기 위해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어 속도를 줄이도록 했던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면서 출범한지 1년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

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하지만 규제 발목을 잡으면서 금융 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었던 은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과 기술투자는 허용하되 대주주의 ‘모탈헤저드(도덕적 헤이)’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과 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

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도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반도체 굴기에 맞서는 JY의 전략

삼성 “미세공정서 초격차 유지”

JY, 화성 반도체 연구소 찾아
경영진에 끊임없는 혁신 당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술 초격차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6일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바로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경영진에게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 전자업계의 현실과 함께 이 부회장이 강조한 ‘반도체 기술 초격차’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먼저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기남 DS부문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강호규 반도체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최첨단 EUV(극자외선) 개발 라인을 깜짝 방문해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2월 착공한 화성 EUV라인은 2020년 본격 가동 전까지 초기 투자비용만 6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설비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 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반도체 1등 기업이라는 자부심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달라”고 부탁했다.

EUV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포토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실리콘 기반의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겨 넣기 위해 레이어 광원을 투사하게 되는데 EUV 공정은 극자외선 파장을 가진 광원을 활용해 진행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삼성은 기존 대비 10분의 1미만 크기인 EUV 스캐너를 이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되는 7나노 이하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7나노 공정 생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개발

라인 방문의 의미를 미세공정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부문에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는 데 대해 월등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이 부회장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1등에 안주하지 말고 차량용 차세대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의 미래 스마트기기를 만드는 생산할 글로벌 제조기업에 첨단반도체를 공급해 왔다. 이들 기업에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메모리 분야를 비롯해 미래 반도체 연구개발(R&D)과 투자도 중시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대목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국가교육회의, 2022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現 중3, 수능 위주전형 확대 선발비율 등은 대학 자율로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현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이 현재보다 확대된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정해하고, 수능 영어와 한국사에 이어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영)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권고안이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L4면〉

권고안에 따르면, 수능 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로 수능 위주전형 비율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다만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설립 목적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 선발방법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공론화 의제 4가지에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대학 자율 또는 활용 가능 입장이었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처럼 일부 과목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다만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 과목이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유지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아울러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추후 수능 절대평가 과목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과 별도로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 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 보완 방안을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신인영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속의 결과에 기반해 마련됐다”며 “대학입시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일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참여단 490명의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날(6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은 교육부에 송부되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권고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hys@